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쇠퇴해 가는 마을의 작은 공장들을 산업관광 상품으로 개발	도쿄
문화·관광	3	외국 관광객을 위해 연극에 영어 자막 서비스 제공	파리
산업·경제	5	중소 사업자에게 정보통신 기술 훈련 지원	빅토리아
사회·복지	8	가정폭력 종식을 위한 전방위 실천방안 마련	빅토리아
행정·교육	11	편의점·우체국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오사카
	12	베를린 장벽붕괴 후 25년: 베를린 경제정책의 회고와 전망	베를린
환경·안전	16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환경부담금 부과	런던
도시교통	18	새로운 도로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개발	산탄데르
도시계획·주택	20	시민단체 참여를 통해 도시 공터 재생 사업 추진	바르셀로나
	25	일반주택 병설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 정비사업 시범 실시	도쿄
	27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월세 주택 확보를 위해 주택사용권 구입 사업 추진	베를린



쇠퇴해 가는 마을의 작은 공장들을 산업관광 상품으로 개발

도쿄都 / 문화·관광

- 도쿄都의 오오타區는 ‘마을 공장’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공장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인데, 최근 소규모 공장의 경영난 및 교외로의 이전, 공장주의 고령화로 10년간 그 수가 크게 줄어가고 있음. 이에 오오타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을 공장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는 “오오타 오픈 팩토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오오타 오픈 팩토리”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연 1회, 오오타區 마을 공장의 물건 만들기 현장을 관광객에게 공개하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약 30개의 마을 공장에 대한 가이드 투어, 공장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오오타區 관광협회, 공장 협동조합, 수도대학 도쿄, 요코하마 국립대학, 도쿄대학 등 관, 지역단체, 대학교가 ‘오오타 오픈 팩토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기획 및 주관하며 오오타區가 후원하고 있음.
- 오오타區는 “오오타 오픈 팩토리” 프로그램으로 2013년 일본관광진흥협회에서 주관한 ‘제7회 산업 관광 마을 만들기 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음.
- 2014년 10월 18일에는 젊은 디자이너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입상자들의 작품은 오오타區의 마을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판매함.



마을 공장 관광에 대한 주민토론회 모습



2014년 10월에 열린 대학생 대상 디자인 공모전



2013년 2월에 실시된 제2회 오픈 팩토리에서 공장주들이 공장 기계의 사용법과 작동원리에 대해서 관광객에게 설명하는 모습

- 일본에서는 최근 산업 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본의 대표 여행사 중 하나인 JTB 여행사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초등학교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3차례의 산업 관광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음.
- 오오타區는 제조에 종사하는 기업 및 마을 공장을 견학 또는 관광하는 외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오오타區 산업 관광 자원 정비 사업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오오타區 산업 관광 정비 사업 보조금 제도’는 관광객이 공장을 관광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 헬멧 및 장애인용 시설 비치, 관광객용 브로셔 제작, 다양한 체험을 위한 재료 구입 등 관광 및 견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방문자에게 제조 공정 등을 공개하는 공장, 방문자가 제조 또는 공정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장, 그리고 방문자에게 전시품을 공개하는 공장은 보조금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제도는 공장의 관광 프로그램 운용비의 2/3, 최대 50만 엔(약 480만원)까지 지원함.
 -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에는 8개의 공장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10월 31일까지 지원자의 신청을 접수받아 지원하고 있음.

https://www.city.ota.tokyo.jp/kanko/sangyo_kanko/open_factory.html

http://www.city.ota.tokyo.jp/kanko/sangyo_kanko/ukeireseibi.html

<http://news.mynavi.jp/news/2014/02/07/234/>

문화·관광

외국 관광객을 위해 연극에 영어 자막 서비스 제공

파리市 / 문화·관광

- 파리市의 관광업 전문 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한 스타트 업(start-up) ‘씨어터 인 파리’(www.theatreinparis.com)社は 최근 불어로 공연되는 연극에 영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 관광객들이 프랑스 연극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서비스는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혁신적인 컨셉트로 극단에서는 따로 영어 자막을 준비하지 않고도 영어를 할 줄 아는 관광객들에게 프랑스 연극의 재미를 느끼게 해줌. 이 혁신적인 서비스는 파리市에서 세계 최초로 개설한 관광업 전문 인큐베이팅 센터인 ‘웰컴 시티 랩(Welcome City Lab)’에 지난 6월에 입주한 한 스타트 업 회사의 작품임.
 - 파리에 300여 개의 공연장이 있고, 이는 런던이나 뉴욕에 뒤지지 않는 숫자임. 그러나 불어의 장벽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은 파리의 공연 예술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음.
 - 이에 이 스타트 업 회사의 창업자인 카를 드 폰생(Carl de Poncins)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어장벽을 넘어서 프랑스의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함.
 - 이 서비스는 영어 자막 제공뿐 아니라, 영어를 하는 안내원이 외국인 관광객에

게 개별적인 좌석 안내까지 해주고, 외국인에게는 자막을 읽기 쉽게 2층 첫 줄이나 무대에 가까운 발코니 석을 제공함.

- 이 서비스는 영어 사용 외국인 관광객들이 파리의 공연장을 영어로 관람하는 경험을 통해 파리의 문화 생활을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함.
- ‘씨어터 인 파리’社は 계절별로 공연되는 연극 프로그램을 미리 본 후, 관심이 가는 공연이 있으면, 해당 극단에 영어 자막 제공 등 협력관계를 제안함. 그리고 각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영어 자막 공연 리스트와 제공 서비스를 소개함.
- ‘씨어터 인 파리’社は ‘바리에테 극장’(19세기에 지어진 파리의 오래된 소극장)에서 공연된 ‘마술 피리(Flûte Enchantée)’에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영어 자막을 제공하여 큰 성공을 거둠.



‘씨어터 인 파리’ 회사 모습

- ‘씨어터 인 파리’社가 이렇게 관광업과 문화산업을 결합하여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웰컴 시티 랩 센터’의 인큐베이팅이 큰 도움이 되었음. ‘씨어터 인 파리’는 ‘웰컴 시티 랩 센터’와 파리 지역경제연구소가 올해 초 공동주관한 관광업 전문 인큐베이팅센터 입주 공모에 선정되어 입주하면서 센터의 다른 입주사로부터 좋은 사업운영 방식을 배우고, 또 서로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관련 업체와의 인맥을 쌓으며, 전문가들로부터 사업 개발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센터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날개를 펼 수 있었음.

- ‘씨어터 인 파리’는 향후 5년 이내에 파리에서 공연되는 대부분의 연극에 영어 자막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http://www.paris.fr/pro/entrepreneurs/theatre-in-paris-quand-l-entrepreneuriat-culturel-et-le-tourisme-se-rencontrent/rub_9493_actu_150039_port_23879

산업·경제

중소 사업자에게 정보통신 기술 훈련 지원

호주 빅토리아州 / 산업·경제

- 빅토리아(Victoria)州는 중소기업자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디지털 해독(Digital Decoding)’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 이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통신 기술을 온라인으로 훈련시켜 그들의 비즈니스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디지털 해독’ 프로그램은 “빅토리아 정보통신 기술 노동력 개발 계획”(Victorian ICT Workforce Development Plan, 이하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음. ‘개발 계획’은 정보통신 기술이 州의 경제성장, 혁신 및 생산성의 주요 동력으로서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수립되었으며, 지난 2014년 6월에 공표되었음.
 - ‘개발 계획’은 크게 1) 정보통신 기술 직종에 대한 오해 해소 및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2) 개별 사업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통신 기술 제공, 3) 정보통신 기술 자격증과 비즈니스 실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3년에 걸쳐 이를 실행에 옮길 계획임.

- ‘디지털 해독’ 프로그램은 ‘개발 계획’의 두 번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비즈니스 운영 및 경쟁력 보유에 결정적인 요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사업자들에 비해 정보통신 기술 이용에 있어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웹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자(종업원 200인 이상)는 각각 97.6%와 63.7%에 달했으나, 중소기업(19인 이하)의 경우는 그 수치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함.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 및 판매 등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구매 주문을 받은 영세 사업자(4인 이하)는 25.4%에 그침.

비즈니스 규모별 정보통신 기술 이용 현황(% , 2012-2013)

종업원 규모	인터넷 접근성	홈페이지 구축	소셜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기	인터넷을 통해 주문 받기
0-4인	91.0	35.9	19.0	45.8	25.4
4-19인	94.1	60.3	33.9	63.8	36.7
20-199인	98.7	80.3	47.8	68.8	40.3
200인 이상	99.8	97.6	63.7	82.4	43.9

- 중소기업들과 대규모 사업자들 간의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의 격차는 중소기업자들의 온라인 비즈니스 활동에 심각한 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위 디지털 배제(digital exclusion)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디지털 해독’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자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획득하도록 돕고자 함. 즉, 단지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업주들이 비즈니스 운영 및 경쟁 전략에 정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함.
- 실제 많은 중소기업자들은 여전히 정보통신 기술을 전략적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로 보기보다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자들의 인식 전환 및 정보통신기술의 가치 및 혜택에 대한 교육 또한 ‘디지털 해독’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사업의 하나임.

- ‘디지털 해독’ 프로그램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약 400여 개의 사업장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됨.
- 주정부는 이번 ‘정보통신 기술 노동력 개발 계획’ 도입이 시행 첫 해에만 약 3억 호주달러(약 3천억 원)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향후 5년에 걸쳐 총 35억 호주달러(약 3조 5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함.
- ‘디지털 해독’ 프로그램은 2014년 9월부터 온라인으로 중소 사업자 참여자들의 등록을 받고 있음(<http://www.business.vic.gov.au/events-workshops-and-mentoring/decoding-digital-how-to-become-a-digital-leader>).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들은 2015년 2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제공받게 됨.
- 주요 지원 내용에는 디지털 강점 및 약점 분석, 디지털 능력 향상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 고객 행위 분석, 온라인 마케팅 관리,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영업 및 고객 지원 방법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훈련도 제공될 계획임.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및 일정은 아래와 같음.

디지털 해독 지원 프로그램 계획

지원 프로그램	시행 시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2015년 2월
중소 사업주들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 교육	2015년 8월
홈페이지 구축 및 빅토리아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프로그램 (Victorian Small Business program) 링크 등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능 훈련	2015년 3월
주정부 ‘개발 계획’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 향상, 연방정부 중소 사업자 재정 지원 프로그램 연계	2014년 9월

<http://www.premier.vic.gov.au/media-centre/media-releases/11598-new-ict-business-skills-training-program-for-small-and-medium-enterprises.html>

사회·복지

가정폭력 종식을 위한 전방위 실천방안 마련

호주 빅토리아주 / 사회·복지

- 가정폭력 문제는 빅토리아(Victoria)주의 최대 지역사회 현안 중의 하나임. 2013년 통계에 의하면, 1년동안 44명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했으며, 가정폭력이 주정부 전체 범죄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2009년 한 해에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지출이 무려 34억 호주 달러(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주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가정폭력 대응 실행 계획”(Victoria's Action Plan to Address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Everyone has a responsibility to act 2012-2015, 이하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음. ‘실행 계획’의 시행으로 주정부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Our Watch)’라는 비영리 기구를 설치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시민 의식 개혁, 가정폭력 방지 운동, 그리고 피해자 보호 활동 등을 위임해 왔고, 학제적 접근에 기반한 지원 센터(Multi-disciplinary Centre)를 설립하여 경찰, 성폭력 전문가 및 아동 보호 복지사가 협력하여 가정 폭력 사례에 종합적으로 대처해 왔음.



‘실행계획’ 개요

- 또 가정 폭력을 전담하는 경찰팀(Family Violence Response Units) 인력을 증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법적 개선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왔음.
- 주정부는 ‘실행 계획’을 통해 확립된 기구와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도입하여 가정 폭력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함.
- 즉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종식”(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이하 ‘가정폭력 종식’)이라는 추가적인 5개년 개입 정책을 도입하여 ‘실행 계획’에 탄력을 제공하고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산출하도록 돕고자 함.
- 1억 5천만 호주달러(약 1천 5백억 원)가 투입될 ‘가정폭력 종식’ 정책은 크게 1) 가정 폭력 예방, 2) 피해자 안전, 3) 가해자 책임성, 4)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의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아래와 같음.
- 가정폭력 예방 :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와 공동으로 범 주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행동 변화를 가져옴. 가정폭력 캠페인은 도로안전 및 금연 캠페인이 지속적인 노력 끝에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루어낸 것처럼 장기적으로 진행될 계획임. 인식 변화 캠페인은 지역 사회, 학교, 직장 및 스포츠클럽 등 사회의 다양한 조직에서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문화 및 규범이 있음에 주목하고, 각 조직에 적합한 인식 변화 프로그램들을 마련함.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양성 평등에 기반한 교과과정(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을 도입해 학생들로 하여금 양성평등적인 학교환경과 문화를 배우게 하며,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는 성(性)차별적인 행위나 관행에 직원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Bystanders Programs)을 시행함.
 - 피해자 안전 : 다학제적 지원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여 전문적인 가정폭력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며,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숙소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함. 새로운 숙소로 이동된 학생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교사를 숙소로 파견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outreach teachers) 시범사업을 실시함.

- 가해자 책임성 :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에게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위성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GPS monitoring)을 실시함.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 전담 법정 직원(specialised family violence court staff)을 배치하며,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기실을 마련함. 수감, 가석방 혹은 지역사회 봉사명령을 받고 있는 가해자들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 전환 및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함.
 -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주지사가 직접 주관하는 가정폭력 예방 위원회(Ministerial Council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를 설립하여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모니터링함. 또한, 법원, 경찰 및 교정 서비스 기구들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간 협조 체제를 강화함.
- ‘가정폭력 실행 계획’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종식’은 각각 아래 링크들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음(http://www.dhs.vic.gov.au/__data/assets/pdf_file/0009/736056/preventing_violence_against_women_and_children_action_plan_102012.pdf, http://www.dhs.vic.gov.au/__data/assets/pdf_file/0005/900743/Ending-violence-against-women-and_children_strategy.pdf).

<http://www.premier.vic.gov.au/media-centre/media-releases/11277-record-investment-by-naphtine-government-to-prevent-family-violence.html>

행재정·교육

편의점·우체국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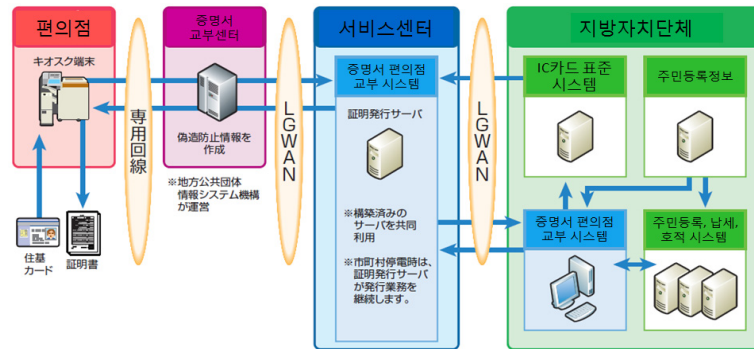
일본 오사카市 / 행재정·교육

- 오사카市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주민기본대장 카드(주민등록증)를 이용하여 편의점에 설치된 복합기에서 주민표의 사본, 인감 등록 증명서, 호적사항 증명서, 호적의 부표 사본, 세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대상 편의점은 세븐 일레븐, 로손, 서클 K, 산쿠스, 패밀리 마트 등 복합기가 설치된 점포이며, 연말연시 및 시스템 유지 보수기간을 제외한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이용이 가능함.
-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사카市에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기본대장카드를 지참하여야 하며, 사전에 편의점 교부 서비스 이용을 등록하여야 함.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금지되어 있음. 또한 수수료는 구청 등의 창구에서 발급받는 경우와 동일함.

‘편의점 교부 서비스’ 대상 증명서

교부 가능 증명서	내 용
주민표 사본	본인을 포함해 동일 가구의 1인, 또는 세대 전원의 증명서 발부 가능
인감등록 증명서	본인만 발부 가능
호적사항 증명서 (전부 혹은 개인)	오사카市에 본적이 있는 자에 한함
호적의 부표 사본	오사카市에 본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본인 및 동일 호적에 기재된 자에 한함. 제적사항은 발부 불가
과세(소득)증명서	세금신고한 자에 한하여 최소 5년간의 소득증명 발부 가능
납세증명서	개인에 한하여 주민세, 재산세의 납세증명서 5개년 분 발부 가능

- 이러한 편의점 교부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것으로 지자체가 증명서 발행용 시스템을 구축하면, 민간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됨.



편의점 증명서 교부 시스템의 메커니즘

- 또한 같은 날부터 오사카市 시내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주민표의 사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우체국 교부 서비스’도 시작함.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체국 영업시간 내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구청 등 관할관공서의 창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와 같은 절차로 이용이 가능하며, 우체국 창구에서 필요사항을 기입한 청구서를 제출하면 발부 가능함.

<http://www.city.osaka.lg.jp/shimin/page/0000284183.html>

베를린 장벽붕괴 후 25년: 베를린 경제정책의 회고와 전망

베를린市 / 행재정·교육

- 베를린市 경제기술연구국은 최근 베를린 장벽붕괴 25주년을 맞이하여 25년간의 베를린市 경제정책을 회고하고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베를린市는 25년간 특별한 경험과 교훈을 얻음. 환

호와 기대 뒤에는 엄청난 고통과 빛이 뒤따랐음. 두개의 반쪽 도시가 합쳐진 베를린은 정부의 특별 재정지원 하에 놓였고, 그 후 25년 동안 경제적 쇠퇴와 성장을 모두 경험했음.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 도시에 깊이 남아 있음. 이번 기자회견은 베를린市가 어떻게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경제적 트렌드를 바꾸어 구조변화와 이미지 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는지, 또 역사적 유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정치는 어떤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市는 과거로부터 어떤 교훈들을 배웠으며, 과거의 교훈들을 앞으로 도시의 미래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명료화하는 자리였음. 다음은 경제기술연구국장 코넬리아 이저(Cornelia Yzer)의 기자회견 내용임.

-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기대는 엄청났지만 그 자유의 선물은 두 배나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베를린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음. 정치적 변혁은 도시의 동쪽과 서쪽 모두를 추락하게 했음.
- 그러나 오늘날 베를린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건실한 기업들, 다양한 창업열기, 베를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증가를 보면서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됨. 오랜 방황 끝에 드디어 성공한 도시가 된 것임. 이 경제적 성취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고통과 싸워서 쟁취한 것이기에 더 놀랄만한 것이고 자랑스러울 수 있음.
- 앞으로의 경제정책적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과거의 쓴 교훈을 명심하는 것임. 우리는 지속적으로 베를린의 독보적인 위치를 입증하면서, 경제·사회적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과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높은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환상에 빠지거나 느슨해져서는 안되며 외부의 도움에 맡겨도 안된다는 것임.
- 베를린의 성공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보조금에 의존하던 태도로부터 당면 문제에 도전하여 해결하려는 태도로의 전향이었음. 과거 베를린은 오랫동안 GDP와 취업자 수에서 최하위였음.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쉽게 잊혀지고 있음.
- 우리는 이제 미래적 주제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아야 함. Industrie 4.0(하이테크 전략 프로젝트), Smart City, 창업열기, 전무후무한 과학연구 붐과 관광도시의 매력에 있어서 베를린은 독보적임. 이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베를린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는 한 도시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또 추락할 수 있는지를 체험했음. 따라서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길로 들어서야 함. 어떤 경제적 성공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될 것임.

1989 –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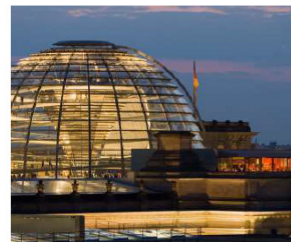
Senatsverwaltung
für Wirtschaft, Technologie
und Forschung **be mit Berlin**



1989-1995: 높은 실업률, 새로운 정부구역 계획 발표, 올림픽 유치 실패

1995 –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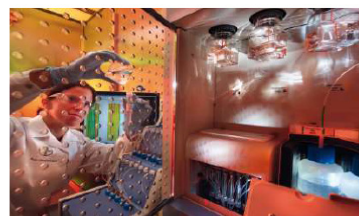
Senatsverwaltung
für Wirtschaft, Technologie
und Forschung **be mit Berlin**



1995-2005: 포츠담 광장 조성,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건설 붐, 제국의회 의사당에서 첫 연방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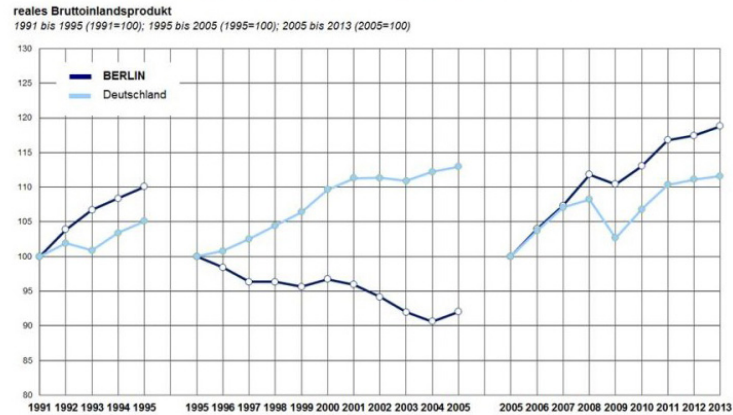
2005 – 2014

Senatsverwaltung
für Wirtschaft, Technologie
und Forschung **be mit Ber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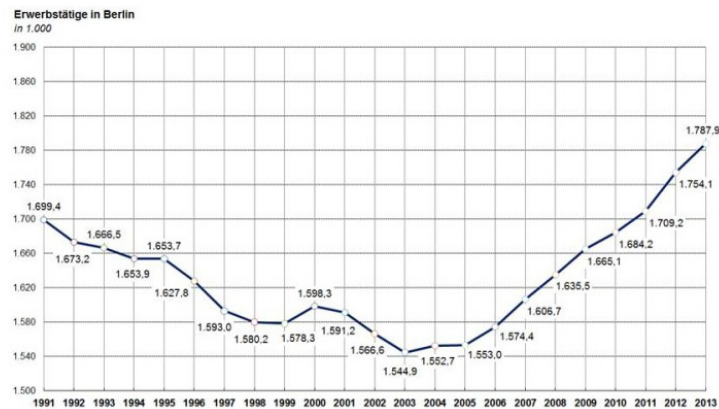
2005-2014: GDP 증가, 월드컵 개최, 국제화 추진, 창업 붐, 디지털 경제, 스마트 시티, 기업 이주

BIP-Wachstum: Aufwärtstrend nach Strukturwandel



1989–2014 경제성장 : GDP 성장 3단계 그래프 1991–1995 / 1995–2005 / 2005–2013(하늘색 선 독일 전체, 파란선 베를린시)

Arbeitsplätze: Nach Talfahrt starker Zuwachs



1989–2014 일자리 수 : 하락 후 강한 성장

<http://www.berlin.de/sen/wirtschaft/presse/pressemitteilungen/2014/pressemitteilung.222197.php>

<http://www.berlin.de/sen/wirtschaft/ueber-uns/unsere-themen/artikel.221669.php>

환경·안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환경부담금 부과

런던市 / 환경·안전

- 런던市는 현재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1.5파운드(약 2만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저공해차량, 전기차 등은 혼잡통행료 면제), 또 市 전체를 저공해구역(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하여 이 저공해구역으로 공해 배출이 심한 트럭 및 버스가 진입할 경우 하루에 최고 200파운드(약 34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Low emission zone을 나타내는 표시



2003년부터 시작된 런던의 혼잡통행료 징수

- 하지만 런던市에서는 해마다 약 4,000여 명의 시민이 공기오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음. 이에 런던市는 대기질 향상을 위해 초저공해구역(Ultra Low Emission Zone)을 추가로 설치하고, 2020년 9월부터 초저공해구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혼잡 통행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루 12.50파운드(약 21,500원)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함. 따라서 승용차를 가지고 런던 중심으로 출퇴근을 하는 차량 소유자는 혼잡통행료와 환경부담금을 합해 하루에 24파운드(약 41,500원)를 납부하게 됨. 큰 트럭의 경우에는 하루에 100파운드(약 173,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
 - 사실 혼잡통행료 징수와 저공해구역 지정으로 인해 런던市는 그 동안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그리고 이미 많은 버스와 연식이 높은 택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오염 배출량 저감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EU에서 제정된 법안은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질소에 대한 새로운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런던市는 강화된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배출량 규제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했음.
 - 런던市는 세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인 이번 초저공해구역 지정이 이산화질소 배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런던市 대기질 개선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실제로 이번 결정을 통해 市가 원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2020년까지 운전자들이 좀더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이나 저공해차량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임.
 -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은 이 계획에 맞추어 2018년부터 모든 택시를 무공해 택시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며, 또 2020년까지 2층 버스의 경우 모두 하이브리드 버스로 대체할 예정임.
 - 당장 모든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바꾸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나, Johnson 런던시장은 런던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대한 빨리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음.

- 싱가포르와 같이 세계의 많은 도시가 이미 런던의 혼잡통행료 제도를 모방하고 있고, 뉴욕의 경우 전시장인 Mike Bloomberg가 2008년 이를 도입하고자 할 정도로 혼잡통행료 부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상파울로의 경우 80%의 운전자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늦어도 2025년까지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런던과 같은 거대도시가 초저공해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 도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http://www.citylab.com/commute/2014/10/london-is-showing-how-cities-should-treat-dirty-cars-in-the-21st-century/382130/>

<https://www.tfl.gov.uk/modes/driving/low-emission-zone>

<http://qz.com/288090/london-is-showing-how-cities-should-treat-dirty-cars-in-the-21st-century/>

<https://consultations.tfl.gov.uk/environment/ultra-low-emission-zone>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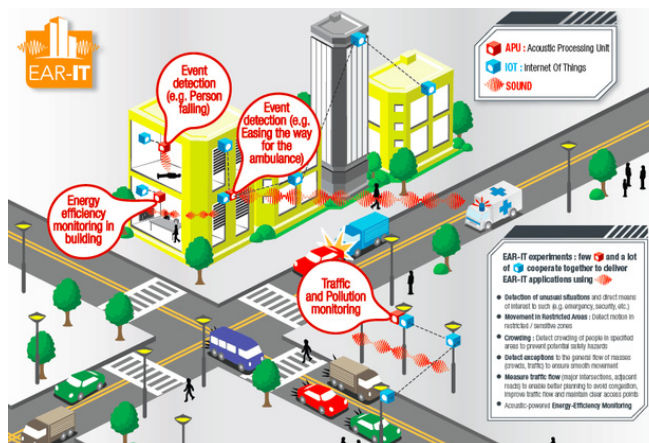
새로운 도로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개발

스페인 산탄데르市 /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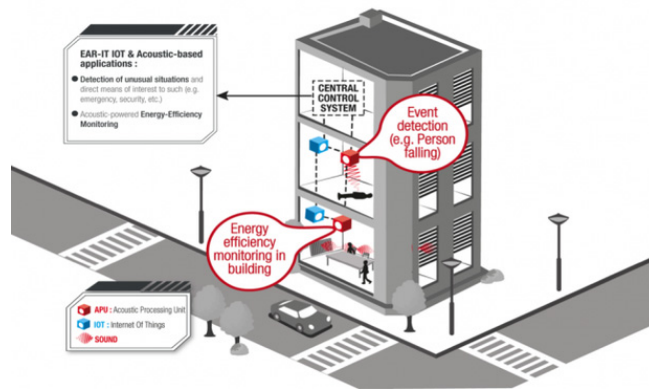
- 1984년도 LA 올림픽은 도로 포장 밑에 차량감지기를 설치하여 통행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교차로 신호등의 녹색신호를 결정하는 ‘자동교통감시통제’(Automated Traffic Surveillance and Control(ATSAC))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됨. 이 시스템은 LA 올림픽 당시 경기장 주변 테스트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이에 따라 LA의 약 4,400여개의 교차로에 도입되었음. 이러한 시스템은 추후에 미국 내 많은 도시(버팔로, 피츠버그, 포틀랜드, 아틀란타 등)에서 차량검지기, 레이더, 차량 블루투스 신호 등을 통한 교통체증 조절 시스템으로 발전되었음.
- 최근 이러한 시스템은 포르투갈 UNINOVA 연구소의 Pedro Malo와 IT 회사인 EGlobalMark의 Philippe Cousin에 의해 ‘Ear-It’이라는 시스템으로 진보하였음.

이 시스템은 음향시설센서로 만들어졌는데, 스페인의 산탄데르(Santander)시의 스마트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음.

- 이 시스템은 수백 개의 음향시설센서(APUs)를 통해 교통량, 속도, 차선점유율, 주차이용률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중앙처리장치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도시 내 교통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줌. 이 시스템은 산탄데르시에서 날씨와 소음에 대한 2년간의 현장 실험을 통해 완성되었음.
- 개발자인 Malo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현재 많은 도시에서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차량검지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함. 즉, 도로 포장 밑에 검지기를 설치하는 대신 이번 시스템은 손쉽게 가로 등 등에 설치가 가능하며, 블루투스와는 달리 단순히 교통량 이외에 다양한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더욱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교통정보 수집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임. Malo와 Cousin에 따르면 ‘Ear-It’은 도로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응급상황 발견, 에너지 감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Ear-It’ 개념도



‘Ear-It’ 실내 사용 예시

- 카네기멜론 대학교 그린디자인 연구소의 Chris Hendrickson 교수에 따르면,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차량과 도로 인프라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통신(vehicle-to-vehicle)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 현재에도 많은 응급차량이 이를 통해 교통신호를 조절하고 있으며, 현재 버스에도 이러한 V2V 기술이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함.

<http://www.citylab.com/commute/2014/10/a-new-approach-to-traffic-control-put-ears-to-the-ground/382177/>

도시계획·주택

시민단체 참여를 통해 도시 공터 재생 사업 추진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도시계획·주택

- 바르셀로나(Barcelona) 시의회는 시의회가 소유한 도시 내의 20여 개의 공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공터 재생 사업’(Pla BUIITS-Vacios Urbanos con implicacion Territorialy Social)을 추진 중임.

- ‘공터 재생 사업’(Pla BUIITS)은 市에 소재한 비영리적인 단체를 대상으로 시의회 소유의 공터들에 대한 1년(3년까지 연장 가능함) 동안의 임시적인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그 사용허가를 주는 것임.
 - ‘공터 재생 사업’은 시의회가, 단기간 동안 건설이 예정되어있지 않고, 또 특정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도시의 공터들의 임시적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이 공터들에 대한 제안들은 관련기관, 시의회의 대리인들, 협력부서의 담당자들, 도시의 10개 구역 대표들, 그리고 시의회 정치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서 심사를 받게 됨.
 - 평가단은 특히 프로그램의 융통성, 임시적인 활용성, 시설물 관리 능력, 그리고 그 제안의 사회적 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제안들은 2013년 4분기부터 실행됨.
- 이 사업은 최근 FAD에 의해 ‘City to City’ 상을 받은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의 Stalled Plazas를 벤치마킹하여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에서 선정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임. 2013년 11월에 12개의 단체가 선정되어 ‘공터 재생 사업’의 공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받았음.
 - 선정된 프로젝트 중 대표적인 것은 Can Roger의 ‘식당+과수원+예술’이 결합된 프로젝트(Can Roger,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역), ‘3개의 과수원 섬’ 프로젝트(L'illa dels 3 horts, 산츠-몬주익 지역), 그리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장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Bicipark, 누만씨아 지역) 프로젝트임.
- Can Roger의 ‘식당+과수원+예술’이 결합된 프로젝트는 최대한 3년간 공터의 임시 사용권을 가지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급식소 + 도시 농장 + 예술과 문화 표현의 공간’을 만들려고 함.
 - 이 프로젝트 운영 기관은 지역 자치회에 의해 구성된 Can Roger 협회임.

Can Roger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2014년 1월에 소개되었으며, 현재 자금 모금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음,

- Can Roger 협회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공터에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함. 즉 아침에 공터에 도착해서 농장을 경작하고, 재배된 작물로 점심을 해먹고, 오후에는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농장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터를 꾸밀려고 함.
- Can Roger 협회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함.

Can Roger 프로젝트의 공터(Roger de Flor 217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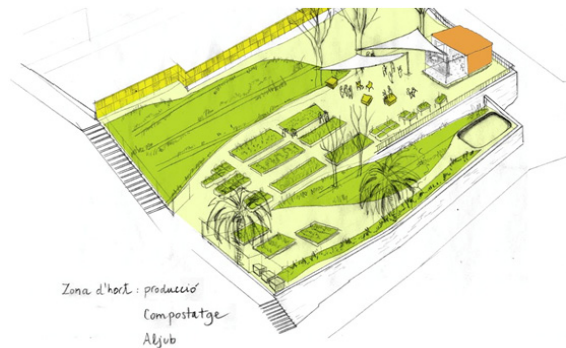


- ‘3개의 과수원 섬’(L'illa dels 3 horts) 프로젝트는 산츠-몬주익 지역에 있는 La Font de la Guatlla 구역의 한 쪽 귀퉁이에 있는 공터를 활용하는 계획임. 이 프로젝트는 교육, 사회, 그리고 환경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 프로젝트 제안자들은 주민들

을 가르치면서 이웃을 만드길 원하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3개의 과수원 섬’ 프로젝트는 주민들을 향해 열려있는 역동적인 다목적 공간인 광장, 그리고 정신 건강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노인들 등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꾸어질 공간인 도시 농장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고자 함.
- ‘3개의 과수원 섬’ 프로젝트는 TARPUNA SCCL(Cooperativa de iniciatives sostenibles)가 다른 여러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고 있음. 최근에는 Jardineria Rubiory Tudor 학교의 학생들이 공터 한 공간에 정원 가꾸기 작업을 시작하고 있음.

3개의 과수원 섬(L'illa dels 3 horts) 프로젝트(Font de la Guatlla에 위치)



3개의 과수원 섬(L'illa dels 3 horts) 프로젝트의 구상도 (농장 지역 : 생산, 퇴비, 집수)

- 자전거 주차장(Bicipark) 프로젝트는 Numancia 길 153번지의 공간을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수리 센터, 자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등으로 만드는 것임. 이 사업은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장려하고, 자전거의 주차 및 수리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빠진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 Bicipark 프로젝트의 운영 단체는 Fundacion Privada Formaciony Trabajo 인데, 올해 3월 말에 공터에 자전거 주차장을 완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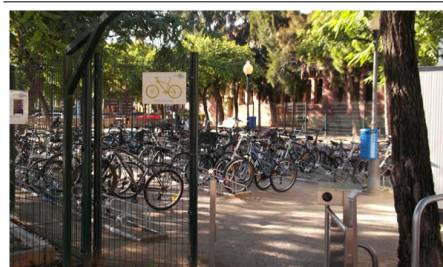
Bicipark 프로젝트 (Numancia 153에 위치)



주변 밀도 : 고
면적 : 1,226 m²
소유자 : 바르셀로나 시의회
용도 : 건물 시설
실제 공터 상황 : 모서리
물 : 사용 불가능
전기 : 사용 가능
하수구 : 사용 가능



Bicipark 프로젝트의 공터



Bicipark 완성 후 모습

http://w110.bcn.cat/portal/site/HabitatUrba/menuitem.7014095af2202d613d303d30a2ef8a0c/?vnextoid=4f0cc9152d1a7310VgnVCM10000072fea8c0RCRD&vnextchannel=4f0cc9152d1a7310VgnVCM10000072fea8c0RCRD&lang=es_ES

http://w110.bcn.cat/HabitatUrba/Continguts/Documents/PlaBuits/Emplasaments/0202_RogerdeFlor217.pdf

<http://assoccanroger.blogspot.com.es/>

http://w110.bcn.cat/HabitatUrba/Continguts/Documents/PlaBuits/Emplasaments/0305_FontdelaGuatlla.pdf

<http://hortsocial.org/illa3horts.html>

http://w110.bcn.cat/HabitatUrba/Continguts/Documents/PlaBuits/Emplasaments/0408_Numancia153.pdf

<http://bicipark.org/el-bicipark/>

일반주택 병설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 정비사업 시범 실시

도쿄都 / 도시계획·주택

- 도쿄都는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고령자가 다양한 세대의 거주자와 교류를 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반주택 병설 형태의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고령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다양한 가치관과 젊은 사람과는 다른 신체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의 정비가 필요함.
 -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은 2011년 10월부터 시작된 제도로써,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설(배리어프리 시스템, 화장실 및 부엌 등에 고령자용 난간 등) 및 서비스(상담 및 간호 서비스)의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임.
 -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에 따른 건설비 보조,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세제혜택 등을 받게 됨.
- 최근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해 기존의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을 고령자가 다양한 세대의 거주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의 주택으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를 함.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도쿄都도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에 일반주택을 함께 건설하

여 다양한 세대의 거주자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정비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함.

- 도쿄都는 이 시범사업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 주택을 포함한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현실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10월 27일 3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제1기에 선정된 사업자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기 선정 사업자 및 사업내용

사업자 명	(주)도쿄 부동산	(주)나르도 (주)커뮤니티 넷
특징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에 일반 아파트 등을 함께 건설 ·육아 세대부터 고령자 세대 등 다세대간의 교류를 위한 카페 설치 ·탁아소 등 현지 수요를 반영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실시	·대학과 연계하여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에 학생·교직원용 임대 주택을 함께 건설 ·고령자가 같은 단지에서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다세대 교류를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 모델을 제안
건설 예정 지역	도쿄都 세타야區	도쿄都 마치다市
면적	토 지 : 약 34,000㎡ 건물면적 : 약 41,000㎡	토 지 : 약 7,300㎡ 건물면적 : 약 4,100㎡
세대수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 : 246세대(18~62㎡) 일반주택: 252세대(71~91㎡) 계 : 498세대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 60세대(31~50㎡) 일반주택: 40세대(25~60㎡) 계 : 100세대
교류시설	커뮤니티 카페 문화의 방 커뮤니티 정원	다목적실 공유 갤러리 커뮤니티 레스토랑
병설시설	·정기 순찰 및 상시 맞춤형 방문 간호 사업소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간호 사업소 ·인가 어린이 집 등	·커뮤니티 하우스(학생용) ·간호 서비스 사업소 ·외래 간호사 공간 등
준공예정	2017년도	2016년도

- 한편, 본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도쿄都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됨.

신축 형태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항목	지원율	지원금 상한액	교부·집행 예정
설계비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 일반주택, 교류시설의 실시 설계에 관한 비용	1/6 8,000천 엔 (약 7,700만 원)	2014년도
정비비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 및 고령자 생활지원 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	2015년도 이후
	일반주택	일반주택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	
	교류시설	교류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 (가구, 집기의 재료비 및 설치비 포함)	

기존 건물 리모델링 형태에 관한 지원

지원 대상 항목	지원율	지원금 상한액	교부·집행 예정
설계비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 일반주택, 교류시설의 실시 설계에 관한 비용	1/6 8,000천 엔 (약 7,700만 원)	2014년도
정비비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	고령자용 서비스 주택 및 고령자 생활지원 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	2015년도 이후
	일반주택	일반주택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	
	교류시설	교류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 (가구, 집기의 재료비 및 설치비 포함)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topics/h26/topi039.html>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topics/h26/pdf/topi039/topi039_1.pdf?1410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월세 주택 확보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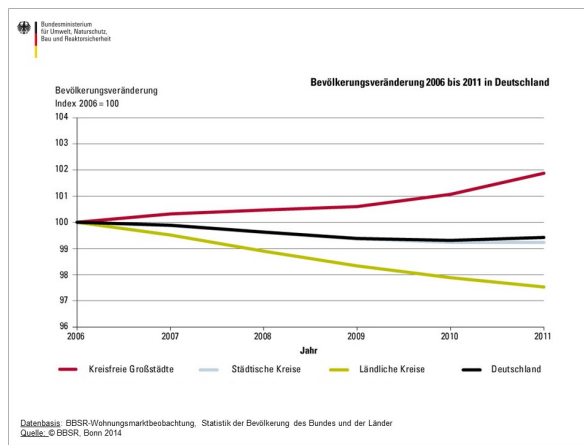
주택사용권 구입 사업 추진

베를린市 / 도시계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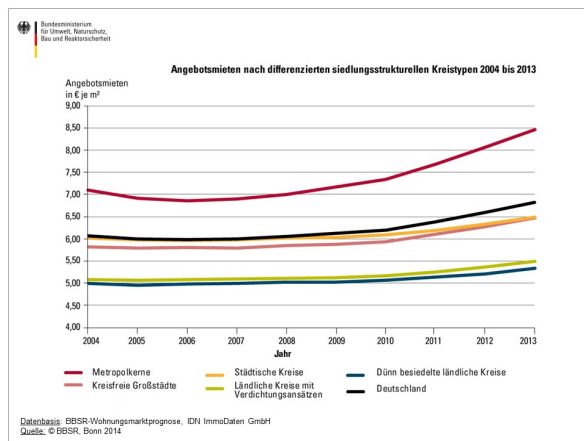
- 베를린市는 도시 내에 저렴한 월세 주택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 기존주택 중에서 저소득 가정에게 시세보다 싼 월세로 집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택사용권 구입 프로그램’(Pilotprogramm zum Ankauf von

Belegungsrechten)을 추진 중임.

- 2014년 7월 10일 독일의 연방주와 각 지자체들은 현재의 주택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환경·자연보호·건설·원전안전부’의 주도 하에 “지불가능한 집과 건축을 위한 동맹(Bündnis für bezahlbares Wohnen und Bauen)”을 결성함. 이 동맹의 목적은 특정 지역에서 증가하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주택의 사회적, 인구적, 에너지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독일 인구변화 2006-2011 : 빨간선 대도시, 하늘색선 중소도시, 노란선 농촌지역, 까만선 독일전체



독일의 월세 변화 2004-2013 : 빨간선 대도시 도심권, 노란선 중소도시, 파란선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분홍선 대도시, 연두색선 인구집중지가 있는 농촌지역, 까만선 독일 전체

-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베를린市에서 지불 가능한 월세(bezahlbare Miete)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베를린市 도시발전환경국은 기존주택 중에 비어있는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저소득층 및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집주인으로 부터 주택사용권을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市는 집 주인이 저소득층 세입자로부터 시세보다 싼 월세를 받는 대신, 집주인에게 지원금 형식으로 월세를 보조해 주기로 함.
 -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집은 베를린 도심부에 위치해야 하고, 방 3칸 이상으로 구성된 집이어야 하며, 현재 집이 비어 있거나 또는 11월 초까지 비게 되는 집이어야 함.
 - 집 주인은 두 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첫째는 프로그램 시작 시점의 첫 월세를 평방미터당 월 6유로(약 8,000원) 이하로 책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단, 계약기간 동안 월세는 매 2년마다 평방미터당 최대 20센트(약 270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함. 둘째는 집을 반드시, 市가 특별히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주거자격 증명서(Wohnberechtigungsschein)를 가진 가족에게만 임대해야 한다는 것임.
 - 市는 집 주인에게 사업기간 동안 매월 주택의 평방미터당 2유로(약 2,700원) 씩을 지원해 줌. 이 돈은 처음에는 대출의 형태로 지불되지만, 사업이 만료될 때까지 집 주인이 市가 제시한 의무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市는 이 돈을 100% 보조금 형태로 전환시켜줌.
 - 이 프로그램의 사업기간은 10년임. 이 사업에는 주택건설조합이나 市의 공공주택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이미 저렴한 월세로 계약된 사회주택이나 市에서 주택개조 및 수선 지원금 또는 유사지원금을 보조해 준 주택의 경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관심 있는 집 주인들은 신청서에 주택의 주소와 크기, 방 개수, 건축년도, 난방방식, 유지관리비 등을 기입해 11월 7일까지 베를린市 도시발전국으로 신청하면 됨. 집이 빈 집 상태로 오래가서 주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市는 신청된 주택에 대해 건물

적합성 심사와 계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임.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wohnraum/belegungsrechte/>

<http://www.bmub.bund.de/presse/pressemitteilungen/pm/artikel/breites-buendnis-fuer-bezahlbares-wohnen-und-bauen/>

<http://www.bmub.bund.de/themen/stadt-wohnen/wohnraumfoerderung/wohnungsgengpaesse-in-ballungs-gebieten-infografiken/>